

‘2025 나주영산강축제’,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현장

시립합창단, 국악단 무대와 케이팝 콘서트 세대 아우른 화합 무대
가족, 친구, 연인 모두 즐긴 체험과 공연, 나주 전역이 축제 열기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들로 행사를 성황리에 이어 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시는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자 셔틀버스를 빛가람동방면 5개소에 2대를 증차해 총 7대를 운행하고 마감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또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진출입로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원활한 차량흐름을 지원했다.

이날 축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영산강 유랑 문화싸롱’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한국사 선생님께서

널리 알려진 최태성 강사와 함께한 ‘영산강 퀴즈 특!’이 영산강의 역사와 나주의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어린이와 어른신까지 모든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예술공연과 나주와 영산강의 역사를 다룬 콘텐츠로 참여형 축제가 만들어졌으며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나주시립합창단의 ‘뮤지컬&라틴삼바’ 공연은 라틴의 경쾌한 리듬과 귀여운 율동을 결합해 큰 호응을 이끌었고 ‘위대한 개츠비’ 등 유명 뮤지컬 인기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어 시립국악단의 마당극 ‘삼색유산놀이’는 나주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판소리와 사물놀이, 전통무용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는 남도의 맛과 흥을 돋웠고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되살렸다.

축제 3일 차 가을밤의 하이라이트는 젊



은 세대를 겨냥한 케이팝 콘서트가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로 장식했다.

4인조 밴드 위시스, 실력과 5인조 걸그룹 리센느와 폭발적 무대를 자랑하는 래퍼 한요한, 감성적이면서 개성 있는 발라드그룹 순순희가 출연해 청춘의 열정이 가득한 케이팝 콘서트로 가을밤을 수놓았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아이들에게 강을 건너는 횡단교를 건너는 경험과 물 위를 건너는 징검다리를 걷는 이색적인 경험을 느끼게 하고 싶어 전라북도 전주에서 찾아왔다”며 “직접 와서 축제장을

구경하니 정말 넓은 정원에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보드게임도 하고 황포돛배도 50% 할인된 가격에 탑승해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인 보드게임존은 200여 종의 인기 보드게임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특별 판매 부스가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축제 4일 차인 11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뽀로로 심어롱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인을 위한 ‘세계문화공연’, ‘영산강전국가요제’ 결선이 예정돼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구직자-기업 가교 역할’ 장성군 기업 탐방 프로그램 호응 청년, 구직자에 기업 방문·소통 기회 제공

장성군이 최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업 문화와 실제 근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장성군이 ‘전라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획·추진했다.

총 20명의 구직자들이 ‘보해양조 장성공장’과 ‘쿠광 로지스틱스서비스’ ‘삼보푸드’를 방문해 기업 소개 및 탐방, 인사 담당자 특강, 질의응답 등의 순서에 참여했다.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군은 앞선 7월에도 목포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들과 함께 ‘나노바이오연연구센터’, ‘에이치엘비랩’, ‘잠든 건강과학’을 탐방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희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일자리 홍보부스’를 운영해 △인생네컷 △타로 취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 취업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구례군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진행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맞춤형 체험활동으로 건강 챙기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채덕, 산동면장, 민간위원장 유영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1개 경로당 24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솔솔버섯 키우기 체험을 통해 자연을 직접 가꾸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일일강사로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에 설립된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 임채덕 산동면장과 유영만 민간위원장을 포함

해 총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채덕 산동면장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산동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한의약 몸 업(UP), 마음 업(UP) 청춘교실’ 프로그램 참여자 30명을 이달 13~24일 선착순 모집한다.

중·장년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과 갱년기 극복을 위해 10/27~11/20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40~64세 영암군민을 모집하고 나선 것.

프로그램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

영암군, 한의약 몸 업 마음 업 청춘교실 참여자 모집

중·장년 기 건강관리·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 선착순 30명

시 영암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 8회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혈압·혈당 측정, 우울 척도 검사, 갱년기 지수 설문 등 기초검사와 △갱년기 극복 건강관리 교육 △근감소증

및 요실금 예방 △기공체조 및 명상 △도자기·라탄 공예 및 꽃바구니 원예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공중보건 한의사와 전문 강사진이 함께 해 건강관리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영암군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에 전화 신청 또는 정보무니(QR)코드로 할 수 있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이번 청춘교실은 중·장년층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건강 생활을 실천할 영암군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추석을 앞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역 내 사회 복지시설 30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위문품 전달

광양시, 시설 입소자·종사자에 따뜻한 마음 전해... 비대면 전달

로 진행됐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없이 외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

난 10월 2일 광양매화원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명절을 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시장은 “광양시의 복지 현장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석이 시민 모두에게 따뜻함과 행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흥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선정 기념 ‘문학행사’

10월부터 12월 10일까지 다채로운 문학행사 잇따라 열려

장흥군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다채로운 문학 릴레이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0일은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공식 발표한 날이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한국 문학의 가치와 진면목이 세계문학사에 중심으로 올라선 의미 있는 사건이다.

장흥군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당시, 전국민이 느꼈던 감동과 기쁨을 되새기고, 노벨문학도시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행사를 마련했다.

문학 릴레이는 10월 18일 개최되는 노벨문학도시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로 시작된다.

천년고찰 보림사와 비자림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성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서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2일간 옛 장흥교도소 빼빼용zip에서 전남도 내

중학생 60명과 문학인이 참여해 문학 자유와 창작을 체험하는 북캠프가 열린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탐진강변과 빼빼용zip에서 문학과 여행, 체험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학 포레스트와 전남 콘텐츠 페어 행사가 동시에 열려 주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흥 문학의 권위와 특별함을 담아 수여하는 장흥문학상 시상식은 11월 12일에 개최한다.

정남진도서관에서는 11월에서 12월까지 한달간 한강 작가 책임기 캠페인을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문학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문학 릴레이의 마지막은 오는 12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행사로 마무리된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문학사에 새 역사를 쓴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며, 장흥군이 지향하는 ‘노벨문학도시’ 비전을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